

# 책에 비친 '바람직한 아버지像'

읽어가는 아버지 모습 일깨우는 출판물 늘어나



어머니의 중요성에 가려 빛을 못보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서들.

새벽같이 나가 밤손님처럼 돌아오는 아버지. 이따금씩 술에 만취가 되어 자고 있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 앉히거나 선물보따리를 가득 안겨주는 것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씻어보려는 아버지. 이렇듯 시간적 여유가 없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아버지와 시간이 있어도 방법을 몰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아버지들을 위한 책이 활발히 출판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은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이는 엄부자모의 이미지가 '자상하고 인자한 아버지'를 요구하는 요즈음에는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어머니에게만 독점되다시피한 가정교육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아버지의 '반쪽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출판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작년부터 활발히 출판되기 시작한 아버지 교육 관계도서는 현재 10여종이 나와 있다. 「아버지의 3분교육」, 「사랑하는 아빠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1분아빠」 등 가정교육의 공동참여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저·역서들은 내용에서는 공통되나 '자녀들의 글' '아버지 자신의 체험기' '아버지 역할에 관한 이론서' '기성세대의 기억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 등 다양한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 다양한 형식의 자녀교육 지침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재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현대사회화의 결과인만큼 이에 관한 책들 또한 산업화의 과정을 먼저 거친 서구나 일본에서부터 출판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이론서나 체험기가 번역되면서 아버지 역할 지침서가 선보이게 된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 3인의 교육방법을 담은

「아버지의 三分교육」(三好京三, 金善陽, 81, 文苑閣).

「당신의 자식을 사람답게 키워라」란 부제의 이 책은 일본의 급격한 사회화에 따른 아버지 부재시대를 지적하면서 3분이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3분 동안의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방식과 그 자체에 대한 기초를 담아주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아버지像의 변화과정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외에 「1분아빠」(스펜서 존슨, 정성호, 84, 선일)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 책에서 심리학박사인 저자는 "아빠의 힘을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공간을 좁히며, 아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1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육아 교육방법을 제시한다. 1분 꾸지람, 1분 칭찬, 1분 목표가 바로 그것.

「아빠가 된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빌 코스비의 「고독한 아빠 자랑스런 아버지」(정성호, 열린책들, 86)는 저자가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생활하면서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엮은 자녀교육지침서. 유아기, 학령기, 10대를 거쳐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일어나는 갖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 아버지가 쓴 체험기는 베스트셀러되기도

「굿모닝 아만다」와 「사랑하는 아빠가」도 아버지가 쓴 기록이다.

「굿모닝 아만다」(봄그린, 윤연자, 87, 중앙일보사)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종래의 견해에 "유아기, 아니 아내의 임신에서부터 아버지교육이 시작되어야 함"을 덧붙이고 있다. 미국의 명 컬럼니스트인 저자는 딸의 출생에서 둘째까지를 기록한 이 책을 통해 분만실에서의 흥분,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진솔하게 표

현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빠가」(패트릭 코넬리, 박원근, 87, 김영사)는 87년 초판 이후 13판을 찍은 베스트셀러.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저자는 두 아들에게 아침마다 식탁 위에 그림편지를 놓고 간다. 아이들에게 못다한 사랑과 교육을 넘치는 시정과 유머에 담아 父情을 표시한 저자의 '독특한 대화방법'을 묶은 이 책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아버지가 쓴 자녀교육체험기와 더불어 자녀들이 쓴 아버지의 교육기인 「아들은 아버

**친구같은 아버지,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아버지 등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좋은 아버지'로의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들이 쏟아져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가 키워라」 「삶의 기둥이 된 아버지의 한마디」 등이 나와 있어 흥미롭다.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들은,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의 태도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4, 50년전 독일 父子의 추억을 담은 「아들은 아버지가 키워라」(구스타프 포스, 현석호, 87, 갑인출판사)에서 저자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깨달은 아버지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아들은 이렇게 키워라」 「아들은 아버지가 키워라」 「내일의 아버지들에게」 등 세 장에 구체적인 아버지의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일본에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일본인의 가정윤리 풍조의 변화를 직접 체험한 후 저술한 '일본의 아버지를 위한 책'이란 점에서 일본과 유사한 산업화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내용이다.

「삶의 기둥이 된 아버지의 한마디」(87, 집현전)는 각계각층 88인의 '오래도록 기억되는 아버지 모습'을 통해 현대산업사회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기성세대가 아닌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아버지 우리 아버지」(87, 대

교문화)와 「아버지의 열쇠」(88, 고려원)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한 아버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실려 있다. 이 두권에는 '아버지 부재시대'의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장 최근에 출판된 책인 「아버지의 열쇠」는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가 "아버지 부재시대의 종결을 위해" 펴낸 것으로 '십대들의 편지를 통해 본 아버지의 역할' '건전한 사회를 위한 아버지의 역할' '화목한 사회를 위한 아버지의 역할'로 나누어 각계전문가와 경험자, 자녀들의 글을 통해 '좋은 아버지像'을 소개하고 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앙케이트를 통해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어린이의 입을 통해 듣고 있으며 아버지에 대한 동시, 산문, 수필 등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방면의 외국이론서와 국내 저작물도 눈에 띈다.

「아버지의 역할」(R.D.Parke, 황응연, 87, 창지사)의 경우는 실례의 소개가 아닌 현대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 방법, 결과 등을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각종 연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아버지 역할에 관한 이론들을 개관하면서 아버지 역할의 신화와 현실을 파헤치고 있는 이 책은 사회화와 사회성 발달, 지적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 우리 실정에 맞는 저서 아쉬워

독서와 자녀교육 상담실장인 황백현씨가 저술한 「천재는 아버지가 키운다」(87, 민예사)는 태어날 때부터 유아기~사회에 진출할 때까지의 아버지 역할을 국내외 자료를 참고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쓴 책. 저자는 '출산 때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시작하라', '아이와 적극적으로 놀이시간을 가져라' 등을 주장하며 아버지가 알아야 할 학업증진방안까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 외에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이론서는 미미한 실정으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맞는 교육이론의 소개가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의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모델은 '능동적인 자녀양육참여'로 변화해야 한다. 지나친 관심이나 무관심한 아버지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이러한 책들은 좋은 아버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아버지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옥경 기자  
1988/06/05 17